



2026. 7. 30 (목)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주담대 금리 0.5%P 오른다...가계대출 문턱 높은 KB

서울경제

<https://zrr.kr/ChT6p4>

KB국민은행은 31일부터 주요 가계대출 상품에 적용하는 금리를 상품별로 0.06~0.53%포인트 조정
특히 영업점 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자가 몰렸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금리 격차를 줄이는 모습

증권 완전자회사화 다시 띄운 iM금융...넘어야 할 산은

머니투데이

<https://zrr.kr/F0iJrD>

iM금융지주가 iM증권 완전 자회사 편입을 추진
다만 잔여 상환전화우선주(RCPS)에 대해서는 소액주주 지분 처리방식이 변수

'기업 승계' 1226곳, 우리은행 손 잡았다

머니투데이

<https://zrr.kr/81H4wC>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올해 2월에 오픈하여 올해 상반기에 기업 총 1226곳이 우리은행과 기업승계 MOU(업무협약)를 체결
대표자의 고령화로 중소기업 승계문제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지역경제, 고용을 함께 지키는 생산적금융 모델을 구축한다는 전략

금리 8월에도 오르나...신현승 한은 총재 "인상 기초 이어갈 필요 있어"

매일경제

<https://zrr.kr/jPQoJC>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연 2.50%인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신현승 한은 총재가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초를 이어가겠다고 재차 언급
다음달 금통위에서도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하지만 대내외 여건을 참고해 추가 인상 시기를 결정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서울경제

<https://zrr.kr/V6le1o>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각 개인 투자자 전체 투자금액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 등이 검토 대상
이달 중순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규제를 발표했지만, 시장 충격이 완화되지 않자 추가 보완책을 내놓은 것

잘나가는 증권사 아픈 손가락 된 IB

한국경제

<https://zrr.kr/oOsAwE>

대형 증권사의 상반기 기업금융(IB) 부문 실적이 회사채·기업공개(IPO)·유상증자 등 전통 IB 사업 실적 급감으로 전년 대비 최대 50% 하락
회사채 시장 기준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7% 선으로 연초보다 1%포인트 넘게 오르고, 중복상장 논란으로 대기업 IPO 일정도 지연이 뒤로 미뤄지며 IB 부문 수익성에 악영향

도수치료 목자 비슷한 비급여 치료 3배로 쏘...실손보험 풍선효과

연합뉴스

<https://zrr.kr/vnKpgC>

이달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자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 비급여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며 1회 4만3천850원으로 가격이 뛴이자, 병·의원이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를 수익 감소분을 보전한 것으로 풀이

예보료를 인상에 보험업권 '화들짝'...손보업계는 날벼락

머니투데이

<https://zrr.kr/QEu820>

금융당국이 예금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보험업권의 인상 폭을 다른 금융업권보다 크게 올리는 방안을 내놔 업계 반발이 예상
특히 생보보다 손보에 보다 높은 예보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는 예보가 출자해 설립한 예별손해보험 매각 문제로 인한 부담을 손보가 분담하자는 차원으로 해석

항공권도 코인으로 결제...에미레이트항공, '크립토닷컴페이' 도입

뉴스1

<https://zrr.kr/5Ph2dL>

에미레이트항공이 가상자산 거래소 크립토닷컴의 '크립토닷컴페이'를 통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도입
결제에는 아랍에미리트(UAE)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현지 통화 또는 승인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산

가상자산사업자 과반, 부채비율 요건 미충족...생존 위기

연합뉴스

<https://zrr.kr/vvTmFz>

가상자산사업자(VASP) 과반이 다음 달 새로 도입되는 진입규제인 '부채비율 200% 이하' 기준을 미충족
거래 침체가 이어지는 데다 법인 시장 등 제도 정비에 마무리되지 않아 매출 확대에 따른 부채비율 개선 기대가 어려운 상황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